

생태체계이론으로 개입한 단일사례연구

염 영 옥(천안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전임강사)

I.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1960년대 이후 탈상황적인 심리치료적인 접근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게 되고 환경적 요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이해의 틀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도시빈민의 증가와 죄질이 악한 폭행의 증가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늘어나면서 가족과 아동, 청소년, 노숙자의 문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벗어난 인간과 환경사이의 적응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인식의 틀로 재구성 되었다. 생태적 개념의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패러다임에 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사회체계와의 상호의존적인 관련성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인식의 틀을 넓혀 주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인 흐름과 생산적 복지라는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이 아직까지도 유효하고 지배적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인간과 환경사이의 이중적 관점을 반영하는 생태적 패러다임은 주도적인 패러다임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홍선미, 2004).

예를들어 오늘날 청소년 세대의 행동 준거틀이 되고있는 생태체계적 사고와 행동은 첫째 관심의 방향을 개별적인 개인에 대한 초점으로부터 그가 살고 있는 다양한 체계로 이동하고 둘째, 지정된 체계를 보는 것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하게 한다. 즉 인간의 행동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체계에 대한 설명 없이는 이해할 수 없으며 인간의 행동을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체계의 모든 부분이 어떻게 함께 기능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박명숙, 1999).

11.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선정

연구대상자 선정은 00보호관찰소에서 상담자원봉사하는 봉사자들의 의견과 보호관찰관의 자문을 종합하여 특별히 문제가 심각하고 상담원들의 상담만으로도 변화가 되지 않는 청소년 몇 명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 상담을 실시한 원생들 중에서 본 이론을 적

용한 것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는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00보호관찰소에서 18-20세 사이의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표집한 인원은 약 00명이었다. 2차적으로 그 표집한 비행청소년 중에서 상담원들의 상담만으로 변화가 되거나 되어가는 자들은 제외하고 자원상담원들과 전임상담원의 상담만으로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청소년 0명을 선별하였다. 그 선별한 자들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 상담할 것인지 요청을 하였다. 5명 정도가 상담을 요청하여 왔으나, 성격장애자¹⁾나, 집안에 문제가 있는 비행청소년²⁾, 아르바이트³⁾를 하여 일정한 시간 상담을 하기 곤란한 비행청소년을 제외하고 선정된 자는 2명이었다. 3차적으로 2명중에서 누구를 택할 것인가 고민을 갖게 되었다. 본연구가 생태체계적인 연구논문이므로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비행청소년이 아니라, 가족, 학교, 친척, 이웃, 친구, 직장, 동사무소까지 생태체계로 개입할 시 관여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11. 단일 사례 적용 결과

1. 사정절차

(1) 일반적인 사항

주소: 서울시 00구 00 4동 513-5호 000빌라 107호

성명: 김기수(가명: 클라이언트로 통일한다)

나이: 만 19세

생년월일: 1988년 5월 16일생

학교: 00상업고등학교 1학년 2반 중퇴

직장: ### #건설

현재하고 있는 일: 상담기간중에 00건설에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었다.

친구관계: 윤00-00전문대학, 이00-취업(LG25시점원), 김00-노가다(일용직)

-
- 1) 여기에서 의미하는 성격장애자란 MMPI검사를 하여 공식적으로 성격장애로 판정이 난자가 아니라, 00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행사에는 참석하겠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참석하지 않고, 설문지를 돌리면 무조건 좋다고 응답하여 신뢰성이 가지 않는 원생을 두고 하는 말이다.
 - 2) 원생이 이곳에 와서 상담을 받고 있는 동안에 부모님의 사업부도로 부가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이혼과 별거, 예상치 못한 가족 구성원의 가출. 어머니의 병원입원 등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
 - 3) 비행청소년중 80%가 부의 실직, 모의 병환,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원생들이 대부분 편의점, 공장, 식당, 공사관에서 시간제나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여 개인의 용돈과 생활비를 벌고 있다.

현재 자주 가는 곳: 당구장, 오락실, 00공원

앞으로의 계획: 생각하여 보지 않았으나, 상담하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2) 의뢰과정

2002년 8월초에 클라이언트의 자발적인 의사보다는 자원상담자와 전문상담자의 요청으로 개별의뢰가 이루어졌으며 개입은 2002년 8월초에서 2002년 8월말까지 총 1개월의 단기개입으로 주 1회 목요일: 오후 2:00- 3:30분까지 방문상담을 실시하였다. 정보 수집은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다 알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정보를 알고 그때그때 과업을 주어 상담하려는 방향을 잡았다. 또한 대인관계나 감정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역동적인 정신분석 위주의 장기상담이나 행동주의, 인지주의적인 기법보다는 이들의 주변환경과의 개입에 초점을 둔 생태체계적인 개입을 하고자 하였다.

(3) 초기 면담시의 클라이언트의 상태

고등학교를 자퇴한 19세의 남자로 말이 없었고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때서운 눈매를 갖고 있었다. 키가 1m 70cm, 마른 체격에 하얀 얼굴과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하고, 하얀 와이셔츠와 7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부모님의 이혼, 재혼과정, 양모가 태국으로 떠난 관계로 가족간의 결속력이 부족하였고, 남동생의 자퇴와 몸이 불편하여 거동이 힘든 할머니와의 생활로 인하여 가끔씩 우울하였고, 자존감이 없어 보였으며 의욕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였다.

2. 사정내용

(1) 미시체계의 사정 - 클라이언트의 성장력 -

㉠ 초등학교 시절 - 3살 때부터 할머니와 살았으며,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6학년 때에 몇 개월 동안 어머니와 같이 지내었다. 할머니께서 어머니(클라이언트의 어머니)은 “나쁜년”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 그때에 기분은 좋지 않았으나 달리 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있었다. 유치원은 주위에서 다니라고 하였으나 안 다녔다 나쁜 아이들과 많이 어울렸고 자주 학교에도 가지 않았으며, 4학년 때부터는 길거리나 버스나 트럭 안에서 잤으며 낮에는 주로 돌아다녔다. 식사는 친구 집에서 하였다.

㉡ 중학교 시절 - 학교에서 여러 가지 말썽도 피우고,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으며 굉장히 싫어하였다. 중학교 1학년 때에 부모님의 이혼과, 아버지의 재혼으로 심한 갈등이 생겨서 당구장, 오락실, 가요방 등에 전전하면서 많이 놀았다. 현재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이때에 사귀 친구들이며, 선생님에 대해서는 기억에 남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하였다 ㉢ 고등학교 시절 -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친구와 강도협의로 경찰서에 오게 되어 범죄소년으로 입건이 되었으며, 클라이언트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상당한 이유를 내세워서 체포되었다. 이 당시 클라이언트는 “제 자신이 왜 그들에게 끌려갔는지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였다. 그 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구속 후 1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때에 피의자측은 【구속적부심사의청구】를 통해 석방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에 구속된 피의자 본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이나 고용주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이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석방을 면하면 즉시 석방이 되나 기각하면 석방되지 못한다. 이것을 볼 때 클라이언트와 00보호관찰소에 온 비행청소년들은 가족지지체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 다음에 검찰에 송치가 되어 구치소에 이송 수감이 되었다. 1호, 2호, 3호처분을 받아서 6개월- 1년의 보호위탁처분을 받고 이곳 00보호관찰소에 오게 되었다. 학교는 어떻게 자퇴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2) 미시체계의 사정 - 가족 구성원, 친구, 친척의 사정

㉠ 아버지 - 40대 후반으로 00지방에서 직장에 다니시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합숙하고 계시는데 1달에 한번씩 올라오시며, 클라이언트와 남동생에게 용돈을 종종 주셨다. 새어머니는 태국여성으로 아버지보다 15살 어리며 5년 전에 아버지와 재혼하셨고, 3개월된 딸(클라이언트의 배다른 여동생)을 데리고 서울에서 생활하는 것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고 힘이 들어 태국으로 떠나셨다.

㉡ 어머니(클라이언트의 생모) - 40대 초반으로 클라이언트가 중학교 1학년 때에 남편(클라이언트의 친아버지)과 이혼하셨다. 헤어진 친어머니에게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여 파출소에 가서 신원조회를 하였다. 이름은 김00, 할머니가 과거에 알고 지내었던 친구와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다고 알려 주셨으며 현재 상계동에 살고 계신다고 하였다 친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었으나 재혼을 하였으면 실망할 것 같아서 만나지 않았다.

㉢ 남동생 - 학교에서 자퇴를 당하였으며, 현재는 놀고 있다. 중학교 다닐 때에 상장도 많이 받고, 머리도 좋았으며 00상고 상업디자인과에 다니다가 학교를 중퇴하였다. 중퇴한 경위는 남동생이 클라이언트 새어머니와 같이 태국에 가기로 약속하였는데 가는 날 아침에 남동생이 갑자기 “외국에 가기 싫어요” 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쳐버리고 잠적하였다. 한동안 찾지 못하다가 학교에 가야할 기간을 훨씬 놓쳐 버린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학교에서는 몇 번 연락이 왔으나 남동생의 연락처를 몰라 미적거리다가 자동적으로 자퇴가 되었다고 하였다(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꺼려하였으므로 더 이상 상세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아마도 현행 교육법상 사고결석이 40일이상 되버려서 퇴학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 여자친구 - 유00(19세) - 클라이언트가 얼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로 현재는 00주유소에서 경리를 보고 있다. 3녀중 막내로 부모님은 생존하여 계시고 아버지는 버스기사 어머니는 식당에 다니시며, 고등학교를 중퇴한 얼굴이 예쁜 여자였다(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수첩을 꺼내어 증명사진을 보여 주었다). 만나게 된 경위는 레스토랑에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났고, 이후 클라이언트는 소년원에 갔었고, 여자친구는 그곳을 나와서 00주유소로 직장을 옮겼다. 사귀지는 약 5개월 되었고, 하루에 한번씩 전화하고 가끔씩 만났다고 하였다. 여자 친구의 부모님은 클라이언트를 잘 알고 있었으며 클라이언트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클라이언트 아버지는 여자 친구를 모르고 있

었다. 현재는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여자 쪽에서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 헤어지고 나서는 전일부터 알고 지내던 다른 여학생과 지금 만나고 있다고 하였다(헤어진 지금까지도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자친구를 못 잊고 있는 것 같았다). ㉞ 할머니 - 얼마전에 사회복지사의 중재와 개입으로 큰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자신의 택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하셨다. 클라이언트는 이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았다고 하였다.

(3) 중간체계의 사정 - 직장사정

㉞ **건설 직장 - 클라이언트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으로 클라이언트를 도와주기 위해 개입하고자 한다.

3. 사정목표

(1) 미시체계의 문제 및 욕구의 확인

㉞ 필기면접을 통하여 클라이언트가 변하고 싶은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 나의 생각을 모두 다 변하고 싶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 아버지의 관심,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된 상담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해요”. “제가 상담에서 기대하는 것은 검정고시를 하게 도와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되고 싶은 모습은 남들보다 잘 나지도 않고 못 나지도 않게 그저 제가 마련한 아담한 집에서 가족들과 평범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의지의 나약한 자인가 하며 자신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㉞ 아버지가 현재 지방에 계시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합숙하고 계시고 1달에 한번씩 올라오시는데 아버지와 다시는 지방에 가지 않고 같이 살고 싶다고 하였다

㉞ 집에 있으면 T.V 를 보고, 당구나 축구를 하면서 놀며, 마땅한 놀이가 없으므로 다른 놀이에 대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㉞ 남동생이 학교에 복학하기를 원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척이나 아버지와 상의하려고 한다.

㉞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이 큰 아버지 댁에 가서서 요양받기를 원하였다.

(2) 중간체계의 문제 및 욕구의 확인

㉞ **건설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40대 아저씨와 싸웠는데 아저씨가 클라이언트를 부모도 나쁘고 지나간 과거를 들먹였다고 하였다. 토요일에 아저씨와 싸운 이후로 목요일 현재까지 직장에 나가지 않았다. 클라이언트는 “아저씨가 자신을 저를 우습게 알아요” 라고 하였을 때 그 상황에 대한 피드백(역할놀이를 실시하였다)을 들어보니 서로의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저씨와 화해하려는 방향을 가지게 되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있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하게 하여 아저씨의 입장과 클라이언트가 아저씨를 대하는 태도에서의 문제점등을 말하게 함으로써 서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 되었다) ㉞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아침 7:00 - 저녁 7:00까지인데 많이 피곤하다고 하였으므로 시간에

대해서는 **건설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절하고자 한다. ㉔ 동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광고를 보았는데 알아보고 있다.

(3) 미시체계의 목표

㉑ 정보수집단계는 자료에서 언급하였듯이 보호자 지지체계가 거의 없었고 지지체계를 만들기 위해 가족, 친구, 친척에 관한 정보와 같이 지지를 해 줄 수 있는 미시체계인 비공식적인 자원지지망을 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비공식 정보수집에 목표를 두었다. 정보수집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려는 계획이었고 직접 사회사업가가 찾아 가서 개입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시체계인 가정, 중간체계인 **건설 직장, 주변 환경에 의뢰하여 직접 개입해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변화되는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미시체계에 개입이 될 지지망들은 동성친구, 여자친구,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팀접근방법]과 [방문상담]을 하려는 “단기계획”을 세웠다.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 있는 여러 체계들을 동원하여 상담을 하려고 한다. 미시체계들 즉 친척, 할머니, 가족, 친구 등은 클라이언트를 도와주려고 하고 새어머니는 현재 외국에 계시므로 직접 만날 수는 없으나 편지나 이메일을 통하여 도움을 줄려는 방향을 모색해본다. 아버지는 잠시 외국에 다녀오시고 나면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중간체계인 직장알선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㉒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사는 방향이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아버지를 만나서 상담을 하려고 하였으며, 아버지를 만나기로 하였다. 클라이언트에게 아버지가 오시는 날짜를 알아서 그 날짜에 전화상담을 하려는 방향을 잡았다.

㉓ 큰아버지와 상담하려는 내용 - 할머니와 사는 데에 불편을 느끼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상담 하려고 한다.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경우에 경비가 많이 들고, 할머니가 실제로 원하는 곳은 클라이언트 집이지만, 클라이언트가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할머니는 클라이언트 집을 원하지만 클라이언트는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고 일을 못하고 수발을 들어주어야 하므로 힘이 든다고 하였다. 큰아버지가 개입을 하셔서 할머니 욕구와 클라이언트 욕구가 다르므로 둘 상황에 맞게 협력, 절충, 양보를 하는 것이다. 또한 큰아버지는 클라이언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있어야 했으며, 클라이언트에게 큰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로서 하기보다는 글로 써 보게 한다. 필기방법을 활용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큰 아버지, 큰집식구, 할머니에게 요구하는 것을 글로 적어오게 한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행동을 관찰을 하여 큰 아버지가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파악한다. 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저해 요인인 분노조절 프로그램, 자기주장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4) 미시체계의 하위목표

㉑ 새어머니와 같이 살 수 있게 방향을 잡았는데 내년엔 군대의 일이 잘 해결이 되면 태국으로 완전히 이민을 가는 방향을 정하고 있다. 이민문제가 잘 해결이 되는 것과 본인은 내년엔 군대를 가는 문제와 직장문제와 검정고시문제가 잘 해결이 되는 것이다.

- ㉔ 남동생의 진학문제를 위하여 [퇴학재심 청구제도]의 도입여부를 알아보고 도움을 준다.
- ㉕ 할머니는 귀가 약하여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고, 몸이 불편하여 밖으로 잘 돌아다니지 못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전화상담은 응해주겠다고 하셨다. 가정방문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셨다. 가정방문을 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인지, 기본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클라이언트가 원하지 않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5) 중간체계의 하위목표

- ㉖ **건설 사장님께 편지로 도움을 요청한다. 클라이언트에게 매일 일기를 써 보게 한다.
- ㉗ **건설에서 같이 일한 아저씨와 잘 지내도록 하고, 노동시간을 조절하여 적게 일하고 월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타협을 보도록 하라고 하였다.

4.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방법

- ① 4차례의 단기적인 개입을 통한 클라이언트와 신뢰관계 형성 및 실태를 파악하였다.
- ② 아버지와 남동생이 다 같이 사는 방향으로 유도되었으며 할머니는 큰 아버지가 당분간 담당하기로 하였다. ③ 클라이언트가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OO건설회사로 다시 개입이 이루어졌다.
- ④ 미시적인 지지망 개입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㉘ 친구 김00에게 사회사업가가 연락을 하였더니 “김**이가 요즘은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5월달에 김지** 생일날이었는데 그날 만나고 그 후에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하였어요 그 자식 잘 있는지 보고 싶네요” 하였다.
- ㉙ 큰아버지와 통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가 밥을 굶을 정도로 못 사는 것은 아니지요 개 아버가 태국에 잠시 갔는데 남동생 공부를 시키기 위하여 갔고 완전히 이민을 갈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그 나라는 학비도 너무 적고 생활비도 적게 들고, 전문대학교까지 무료로 하므로 개 남동생과 개도 공부 시킬려고 그나라 물가와 사정을 알아 볼려고 갔지요” 고 하셨다. “개 친애미와 애비가 왜 헤어졌는지는 저야 모르지요” 하셨지만 실상은 알고 있는 사실을 숨기는 것 같다(사회복지사는 이 부분에서 약간 큰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는것을 들었다) “만약에 개가 그곳에서 공부를 못하게 되면 내년 3월에 개 남동생을 학교에 복학하게 해야지요 개 할머니는 당분간 제가 돌보지요” 이일은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진 열매였다. “개 아버가 개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요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하여도 통 말을 듣지 않으며 아버지를 많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애비가 그러면 너 하는데로 내버려 두겠다고 한 것인데 개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지요” 라고 대답하셨다.
- ㉚ 중간체계인 **건설은 월요일에 가서 아저씨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였으며 일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일을 하다가 실수로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허리, 다리를 다쳤으며, 현재는 몸은 괜찮으나 시간 타협은 되지 않아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받은 월급 70만원으로, 동생 용돈을

주고, 할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고, 밀린 외상값 지불하고 나니 현재 돈은 없다고 하였다.

5. 사례종결

① 본 상담은 사회복지가가 4번이며 1개월이라는 단기간의 접근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정신 역동적인 개입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생태체계적인 체계망 개입을 한 것으로 클라이언트의 가족구성원의 중요성과 실제적인 문제해결, 친구와 친척들의 폭넓은 미시적인 개입과 중간 체계의 개입을 통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효과를 보았다

② 클라이언트는 상담 기간중 점차로 밝게 웃고 외모도 단정하게 달라져 갔으며 00보호관찰소에서 모범적인 원생으로 추천을 받게 되어 일찍 퇴소하였다.

③ 6개월후에 클라이언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서울에 오셔서 클라이언트와 같이 살게 되었고, 새어머님과도 연락이 잘 되고 있으며, 남동생은 학교에 복학하는 것이 힘이 들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할머니는 당분간 큰아버지 댁에 계시기로 하였다 클라이언트는 직장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약간의 저축도 하고 있었고 상담을 마친 후 3개월이 지나서 추후상담과 보고를 위하여 만나기로 약속하여 만났게 되었는데 여자친구와 같이 00보호관찰소에 와서 본인에게 줄 선물을 사가지고 왔으며 인사도 정중하게 하였다 너무나 몰라보게 달라졌다.

참 고 문 헌

- 박명숙(1999). “생태체계이론(Ecosystem theory)에 대한 이해와 사회사업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사회사업연구소. 『사회복지리뷰』. Vol.4. No.1.
- 오혜경(1998). “사회사업실천에서 생태체계이론의 적용에 관한 서설적 연구”. 카톨릭대학교 사회사업연구소. 『社會科學研究』 Vol.14. No.1.
- 윤종희(1994)，“아동, 가족 연구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의 적용”,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pp.47-70.
- 임정빈, 임혜경(1991), “가정관리연구에서의 체계론적 접근과 인간생태학적 접근에 대한 검토“, 한국생활과학연구, 9. 한양대학교한국생활과학연구소.
- 홍선미(2001). “자활사업의 사회복지실천적 개입방안과 활성화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춘계학술대회자료집』.